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4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군인들이 인쇄사를 찾은 까닭은

1962년 5월 2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 국가민족 위해 공헌하자’라는 제목으로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비서관 이낙선 중령 등이 광명인쇄공사(대표 이학수)를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다. 군인들이 광명인쇄공사를 찾은 것은 광명인쇄공사 40여명의 종업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이날 기념품을 받은 40여명의 종업원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회생기사의 역사적인 날이었던 1961년 5월 16일 자 정부 김중필 중앙정보부장의 진두지휘로 군사혁명을 알리는 전단과 저 유명한 혁명공약을 인쇄한 이름 없는 혁명 대열의 일원인 것이다」

신문은 또한 의리를 저 버리지 않고 광명인쇄공사를 방문한 혁명 지도자들의 따뜻한 배려에 “우리에게 무슨 큰공이 있겠습니까.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정보부장님께서 기념품까지 주시니 감사한 마음 무어라 표현할 길 없으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거워 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공포 떨다가 중앙정보부장님의 침착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고 새삼 굳은 결의했었으며 혁명의 감격과 오늘의 이 기쁨을 맛보게 되니 깊은 감회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광명인쇄공사 근로자 김응수씨의 말을 신고 있다.

한국근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 중의 하나는 5·16 군사정변. 이 사건과 인쇄인과의 관계는 인쇄문화시보 이외에도 최근 발간된 삼화인쇄 유기정 회장의 자서전에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유기정 회장의 자서전을 요약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혁명 공약을 인쇄한 광명인쇄공사 이학수 사장 외에도 유기정 당시 인쇄문화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채복기 삼성인쇄 회장, 강학성 전 인쇄협회 회장 등이 대략 1달 전에 이학수 씨를 통해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혁명 전날 당시로서는 인쇄시설이 충분치 않았던지 광명인쇄공사 이학수 사장은 삼화인쇄 유기정 회장에게 익일(16일)에 자신의 인쇄사로 와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이학수 사장의 귀뜸대로 혁명은 일어났고, 유기정 회장은 망설임을 거듭하다 결국 광명인쇄공사를 찾는다. 유기정 회장이 광명인쇄공사를 찾았을 때 광명인쇄공사에서는 미처 재단을 못한 1천5백장의 전단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단이 아닌 포고문이었다.

그러나 포고문을 인쇄하려면 새로운 글씨를 도안할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광명인쇄공사는 군인들이 요구하는 도안을 쓸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였다. 결국 도안은 유기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화인쇄에 근무하고 있던 최정호 씨의 손을 거쳐 완성됐고, 인쇄는 조계사 앞에 있던 삼영사(三英社)에서 하게 된다.

##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서

1954년 5월 8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 좋지 않았던 전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갈수기를 벗어난 지난 4월에 들어서도 화력 수력을 막론하고 전기출력이 극히 불량하여 생산업계 일반전기요 수요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오던 바 최근의 증가한 강우로 인하여 각 발전소 저수지의 수위가 재차 상승하여 수력발전량이 증가됨에 따라 전력 사정이 극히 호전되고 있다 한다”고 전했다.

해방 전 대락 침략의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했던 일본은 주요 중공업 및 관련 산업을 북한 지방에 주요 배치했다. 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 후 국내 172만Kw의 전력 생산량의 90%가 북한에서 생산되었으며, 남한에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청평댐 등이 고작이었다.

좋지 않은 전력 사정 와중에 1948년 5월 14일을 기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단전을 실시함으로써 국내 전력 사정은 극히 나빠져서, 당시 남한의 전기 생산 능력은 20만 톤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비라도 오지 않으면 수력 발전마저 용이치 않았다. 더군다나 1954년 5월의 경우는 휴전이 성립된 지(1953년 7월 27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마저 되지 않은 국내 전력 사정을 충분히 감안할 만 하다.

### 비수기엔 월급이 3분의 1

1957년 5월 30일자 인쇄문화시보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받는 종업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보냈다. 신문은 '어깨너머로 간신히 기술을 습득하여 지금은 의젓한 기술자가 된 나이 어린 어느 고로타입 차지공(差紙工)은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월 1만5천원 썩의 노임을 받았다는 것인데 기업주로부터 이 달 말부터는 수입이 없으므로 오천원 이상을 줄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용산구에 위치한 한 사진인쇄사에서 4월부터 10월까지의 일이 없으므로 이 기간동안에 일부 직원은 기존 임금의 삼분의 일만 주고 나머지는 삼분의 일도 도급제를 실시하겠다고 종업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도급제 적용을 받게 될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도급제가 운영될지 합의된 바도 없어 5천원의 월급이라도 받게된 직원들은 그나마 다행' 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 통고에 대해 종업원들은 '눌 수도 없으니 그 월급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고 단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경기가 좋지 않기는 모두 마찬가지여서 비슷한 형태로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일감이 없어서 직원들을 격일제로 근무를 시키고 월급을 50%밖에 못 주고 있는 또 다른 업체 사장은 "삼분의 일을 주는 행위는 고약한 처사" 라고 꼬집었다.

### 정부인쇄물 안 받아!

1958년 5월 30일자 신문에는 '관직영공장인가는 업계 사활문제' 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단기 4291년 정기 총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날 신문에서는 정부의 직영공장인가 방침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법을 전하고 있는데 이날 총회에서 업계는 '정부 각 요로 및 이 대통령과 이 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업계 대표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을 보내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쇄협회 모든 회원이 정부의 모든 인쇄물 주수를 거부할 것' 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 직영 인쇄실, 즉 공보실에서 운영하겠다는 인쇄공장 문제는 그 해 내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국회 예결위에서조차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는 '공보실에서 정부직영 인쇄공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유비로 이를 증설하지는 않을 것' 이란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조건부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어서, 당시 예결위의 결정대로라면 정부 돈이 아닌 돈으로 허락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공보실은 부대조건의 약점을 악용 1958년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대한공론사' 를 지원해 주는 형태를 빌려 사실상 정부 직영 공장 운영 안을 계속 추진했다.

### 미스코리아 아닌 미스산업 오숙자양

1962년 5월 13일, 근·지·미를 겸비한 새나라 창조에 새 일꾼형을 뽑는 '전국미스산업선발대회' 가 열렸다. 전국산업박람회 주관인 이 행사에는 경기도와 제주,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산업체에서 선발된 23명의 후보자가 자웅을 겨룬 대회였는데 1위에 영광인쇄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오숙자양이 당선되었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내건 제3공화국답게 치러진 이 대회의 상위 입상 기준은 '지성미·근로미·자연미 등 경제재건에 알맞은 아름다움' 이었다고 한다. 수명복 심사는 당연히 없었으며, 신 생활복, 자유복 심사를 통해 1위에 당선된 오숙자 양에게는 5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주어졌으며, 2개월 간의 일정으로 일본 및 유럽 산업 시찰의 기회가 주어졌다. 오숙자 양은 "모든 부분에 부족한 제가 이번 미스산업에 당선된 데 대하여는 업계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라 생각되며, 감히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용우기자〉